

1970년대와 1990년대 간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와 세대차 증감*

나은영 · 차재호

전북대 심리학과 · 서울대 심리학과

본 논문에서는 1990년대 말 한국인의 가치관과 세대차가 1970년대에 비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분석하였다. 1998년 조사시 1979년 조사 항목과 동일한 항목들을 포함시킴으로써, 20년 간격의 두 시기 자료의 맞비교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조사 결과, 1990년대 말에 가장 눈에 띄는 한국인의 가치관은 (1)자신과 가족 중심의 개인주의 증가(특히 젊은 층과 고학력 및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2)여성에 대한 평등의식 증가(사회활동 허용, 정조관념 감소 등), (3)탈물질주의 가치 증가 경향의 주춤(IMF 이후 물질주의 쪽으로 약간 되돌아감), 그리고 (4)자기주장성 및 불확실성 수용경향 증가 등으로 특징지워짐이 드러났다. 뚜렷한 세대차 증가를 보인 젊은 층 쪽의 가치관은 주로 풍부한 인생 중요시, 정조관념 및 상하 구별 경시, 그리고 개인주의 및 자기주장성의 증가와 관련되는 가치들이었다. 대체로 급격히 변화하는 가치관일수록 세대차가 더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젊은 층의 변화 폭이 고연령층의 변화 폭보다 더 큰 데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기 이전에 탈물질주의로 치달던 경향이 1998년에는 대체로 주춤해지면서 물질주의 쪽으로 잠시 후퇴한 경향도 보였는데, 이러한 역방향의 일시적인 변화 속도도 젊은 층이 더 빨랐다. 가치관의 변화와 세대차의 증감 정도를 시대효과와 연령효과로 나누어 분석하고 논의하였다.

급격하게 달라져 가는 가치관의 변화를 추적하는 것은 미래 사회의 모습을 예측하고 이에 적응해 가기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다. 변화 속도가 크지 않은 사회에서는 세대간의 가치 차이도 그다지 크지 않지만, 변화 속도가 빠른 사회에서는 젊은 층의 변화 속도가 고연령층의 변화 속도에 비해 더 빠르기 때문에 더욱

큰 세대차를 유발하게 되고, 이에 따른 세대간 갈등의 문제가 자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 Inglehart(1997)는 산업화된 43개 조사대상국 중 한국 사회가 “가장 큰 세대차를 보이는” 사회임을 가시적으로 보여 주었다. 그에 따르면, 선진국은 대개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높은 탈물질주의의 가치관을 지니고 있고 후진국은 대

* 본 연구는 1996년 12월부터 3년간의 계획으로 시작된 교육부 지원 대학부설연구소(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세부과제(책임연구자: 서울대 인류학과 이문웅 교수) “탈현대시대 한국인의 의식과 관행” 2차년 조사연구의 일부를 보고한 것이다. 이 조사에서 첫 저자가 문항작성 및 분석을 담당했던 “가치관과 탈물질주의”에 해당하는 조사 결과를 두 번째 저자가 1979년에 수집했던 원자료 및 차재호(1985)의 결과와 비교하여 본 논문을 작성하였다. 1998년 조사의 전체 지휘에 애써 주신 서울대 사회학과 이재열 교수께 감사드리며, 방대한 양의 자료 분석에 도움을 준 서울대 사회학과 대학원 정동일 조교에게도 사의를 표한다.

개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낮은 탈물질주의(즉, 물질주의) 가치관을 지니고 있어서 세대차가 크지 않으나, 한국처럼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는 고연령층은 물질주의 쪽에 머물고 있는 데 비해 젊은 층이 아주 빠른 속도로 탈물질주의 쪽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세대차가 커진다(나은영·민경환, 1998, p.87, 그림 7; Inglehart, 1997, p.45, 그림 5.5 참조). 그러므로 21세기를 목전에 둔 이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가치관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어떤 가치관에서 큰 세대차를 보이고 있는지를 실증적 자료를 통해 제시할 수 있다면, 급격한 변화에의 적응을 도울 수 있음은 물론 세대간의 가치 차이로 인한 갈등의 예방과 그 해결책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였다. 그 하나는 (1) 1970년대와 1990년대의 한국인의 가치관을 비교하여 어떤 가치관이 많이 변하고 어떤 가치관이 안정적인지를 구분하는 것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2) 1970년대와 1990년대의 세대차 증감을 비교하여 어떤 가치관에서 세대차가 커지고, 어떤 가치관에서 세대차가 줄어들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의 가치관 조사 연구들이 많이 행해지기는 했으나(예: 임희섭, 1994), 시대변화를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몇십 년 전의 문항들을 그대로 사용하여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다. 그 이유는 우선 단기간에 쉽게 변화하지 않는 가치관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수십 년 간격의 연구가 필요한데 그 기간 동안 이미 한 연구자 자신의 관심도 바뀌고 또 연구자들의 구성 자체가 바뀌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연구들의 연속성이 이어지기가 힘들다. 뿐만 아니라, 한 연구자가 통시적 연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더라도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문항을 구성하는 낱말들의 의미가 이전에는 자연스럽던 것들도 어색하게 변화하여 그런 부분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생기기도 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한 시점의 연구만을 가지고 다른 자료들과 비교해 가며 변화의 방향을 유추해 낸다.

그러한 시도의 하나로서 차재호(1985)는 1979년 한 시점의 세대간 비교 연구를 통해 시대변화를 유추해

낸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해방 후 한국인의 가치, 태도, 및 신념의 시대적 변천”을 보기 위해 1979년 당시의 20대와 50대 연령층을 조사하여 세대차를 비교하였다. 연령과 함께 근대성(modernity) 변인의 하나로 학력과 거주지를 동시에 고려하였다. 즉, 농촌에 거주하는 저학력자(초등학교 졸업 학력 이하), 서울에 거주하는 중학력자(초등학교 졸업자부터 중학교 졸업자까지), 그리고 서울에 거주하는 고학력자(대학교 3학년 이상) 각 집단마다 20대와 50대를 각각 100명(남녀 각 50명)씩 표집하여, 학력과 거주지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20대와 50대를 비교함으로써 순수한 연령의 효과와 시대의 효과를 유추해 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처음부터 1990년대의 가치관을 1970년대와 정확히 비교해 보려는 목적을 지니고 출발했기 때문에, 1998년의 조사 자료를 구성할 때 가치관과 관련되는 문항들 중 상당수(21문항 중 19문항)를 1979년의 조사문항과 똑같은 것들로 사용하였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어투가 조금 어색해진 부분이 있어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정확한 맞비교를 목적으로 삼았다. 1990년대의 조사에서는 인구비례에 의해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남녀 800명을 표집했기 때문에, 두 시기의 20대 자료와 50대 자료를 정확히 마주 비교할 수가 있었다. 이와 같은 설계로 두 시기의 세대차를 똑같은 조건에서 비교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1990년대의 40대 자료를 함께 이용하여 20년간의 변화 내용 가운데 어떤 가치관이 시대효과가 크고 어떤 가치관이 연령효과가 큰 지도 가려낼 수 있었다. 즉, (1) 1970년대의 20대가 20년 간의 시대변화를 겪으면서 나이가 들어 1990년대의 40대가 되었을 것이므로, 이 두 연령집단 간의 차이에는 시대효과와 연령효과가 모두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2) 1970년대의 20대와 1990년대의 20대 간 차이는 순수한 시대효과만을 반영할 것이다. 끝으로, (1)에서 (2)를 뺀 값은 순수한 연령효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1970년대의 조사 설계 당시에는 농촌/저학력, 서울/중학력, 및 서울/고학력의 20대와 50대 간 가치관을 비교함으로써 시대변화를 유추해 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 당시와 같은 문항들을 사용한 1990년대

표 1. 1998년 조사 대상의 성별, 연령별, 및 지역별 분포

지 역	연 령				계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남 자					
서울	29	26	18	19	92
6개 광역시	31	31	21	22	105
8개 도의 시부	39	42	25	31	137
8개 도의 군부	13	13	10	22	58
여 자					
서울	29	27	19	23	98
6개 광역시	31	31	19	28	109
8개 도의 시부	37	40	22	41	140
8개 도의 군부	10	13	11	27	61
계	219	223	145	213	800

주. 구체적인 조사 지점은 부록 B 참조.

의 조사 결과를 추가함으로써 중단적 자료와 횡단적 자료가 모두 갖추어져, 가치관의 변화와 세대차의 증감에 대한 보다 정확한 결론이 가능해졌다.

방 법

조사대상 및 표본추출 방법

인구크기에 비례한 다단계 층화 표집법에 근거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만20세 이상 성인남녀 800명을 1998년의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1979년의 구체적인 표집 방법은 차재호, 1985 참조). 구체적으로, 먼저 각 지역군의 표준적인 지역을 조사지점으로 선택하였다(부록 B 참조). 그 다음, 해당 조사지점의 동사무소를 기준으로 3가구당 1가구를 선택하되, 전체 인구비례에 의해 할당된 표본의 분포에 맞는 응답자를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표집된 사람들의 성별, 연령별, 및 지역별 분포는 표1과 같다.

문항구성 방법

문항의 내용은 나은영과 민경환(1998)의 이론적 개관을 토대로 구성하였다. 각 항목별로 문항을 선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았다(구체적인 문항내용은 부록 A 참조):

가치관 문항(21개). 가치관 문항은 차재호(1985)의 1979년 조사문항들 가운데 Hofstede(1991)의 5개 문

화차원...(1)개인주의-집단주의, (2)탈권위주의(권력거리), (3)자기주장성(남성성-여성성), (4)불확실성 회피, (5)미래지향성 차원...과 (6)남녀평등 의식 및 (7)풍요로운 생활을 나타낸다고 여겨지는 문항들을 각각 3개씩 선정하였다. 각각의 문항은 두 개의 선택지 가운데 자신의 의견에 가까운 것을 하나 고르도록 되어 있었다(부록 A 참조). 예를 들면, “사람이 가장 떠받들어야 할 것은 (1)자기의 나라이다” 또는 “(2)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다”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문항이 각 차원별로 3개씩 모두 21 문항 선정되었다.¹⁾

탈물질주의 문항(1개). 탈물질주의 측정 문항은 정철희(1997)가 Inglehart(1997)의 문항을 번역하여 사용했던 것으로, 국가 목표 12항목 중 6항목을 선택하는 질문이었다. 이성적·합법적 권위의 기반 위에서 경제성장과 성취동기에 역점을 두었던 시대가 물질주의의 시대라면, 선진국들부터 점차 권위를 덜 강조하며 개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중요시하고 주관적 안녕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이 바로 탈물질주의 시대의 시작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나은영·민경환, 1998; Inglehart, 1997 참조). 장기적인 국가목표 12가지 중 중요하게 꼽은 6가지 안에 탈물질

1) 불확실성 회피 차원과 미래지향성 차원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1979년의 조사 문항들 중에서 3개씩을 모두 선정하기가 어려워, 1문항씩을 새로 만들었다(부록 A 및 표5와 표6 참조).

주의 항목(부록 A의 문2 참조: 직장과 사회에서 발언권 증대, 환경 개선, 언론자유 보장, 정부 정책결정에 발언권 증대, 좀 더 인간적인 사회로의 발전, 그리고 돈보다 아이디어가 중요시되는 사회) 중 몇 개를 포함시켰는지를 탈물질주의 정도의 지표로 점수화하였다.

기타 인구통계학적 질문들로 응답자의 성별, 연령, 직업, 학력, 거주지 등을 묻는 내용들이 첨가되었으며, 몇 가지 관련문항들을 덧붙였다.

조사기관, 시기, 및 자료수집 방법

현대리서치에 의뢰하여 1998년 8월 7일부터 8월 25일까지의 기간 중에 조사를 실시하였다. 훈련받은 면접자들이 표본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1:1 개별면접조사(face-to-face interview)를 함으로써 자료를 수집하였다.

결과 및 논의

결과를 논의할 때 1979년 자료와의 직접비교를 위해 성별, 연령별, 및 학력별 분석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대체로 소득수준 및 지역규모의 효과는 학력효과와 같은 방향이었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고 대도시에서 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력별 분석 결과를 보면 소득수준과 지역규모의 효과도 추측이 된다. 직업별로는 대개 전문직과 학생들이 진보적 가치관 쪽을, 농어업 종사자와 주부들이 보수적 가치관 쪽을 견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성별, 연령, 및 학력효과 이외에는 특기할 만한 경우만 언급하고자 한다.

1. 1970년대와 1990년대의 가치관 비교 및 세대차 증감 비교

가치관을 묻는 7개 차원 21문항 중에서 7문항은 차재호(1985)의 표2와 비교 분석하였으며, 12문항은 1979년 조사의 원자료와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1998년 조사에 새로 추가한 2문항은 1970년대의 자료가 없어 이번 조사의 결과만을 분석하였다.

표2부터 표8까지는 가치관의 차원별로 각 문항마다 두 개씩의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한 사람들의 1998년 비율이 제시되어 있으며, 1979년의 선택 비율은 괄호 안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시대차를 검증한 방법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각 층별로(즉, 남녀별, 연령대별, 및 학력별로) 각 문항마다 두 번째의 선택지를 택한 사람들의 1979년 비율과 1998년 비율 간의 차이에 대한 z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1998년의 자료에 한하여 남녀차, 연령차, 및 학력차에 관한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1) 자신과 가족 중심 개인주의

표2는 자신과 가족 중심 개인주의 차원의 조사 결과를 요약해 놓은 것이다. 이 표의 첫 번째 문항 결과를 보면, 1970년대에 비해 충효사상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대체로 높아지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20대의 경우 충효사상을 경시하는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으며(시대차 $z=3.93$, $p<.001$), 남자보다 여자가, 그리고 고학력자보다 저학력자가 더 큰 시대변화를 보이고 있다. 두 시기의 20대와 50대 자료를 비교해 보면, 각 세대가 충효사상이 중요치 않다고 응답한 비율 간의 차이로 계산한 세대차가 1979년에도 11.3%로 컸으나, 1998년의 세대차도 29.0%에 이른다. 20년 기간 동안의 세대차 증가폭이 17.7%로 매우 큰 항목이다(표11 참조). 세대차 증감폭과 연령효과에 관한 결과는 본 논문의 후반부 표11과 표12에 전체적으로 요약되어 있다.

표2의 문항2는 사람이 가장 떠받들어야 할 것으로 나라를 택할 것인지 자신과 가족을 택할 것인지를 묻는 내용이었는데, 이 문항에서 전체적으로 아주 급격한 시대변화가 관찰된다(표2의 z점수와 표11의 좌측 참조). 1970년대에 비해 자신과 가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추세이며, 특히 남성, 젊은 층일수록 변화의 폭이 크고, 1998년 현재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신과 가족 중심의 개인주의 성향이 높다. 1970년대에는 전체적으로 자신과 가족보다 나라를 택한 비율이 높았고, 자신과 가족을 택한 비율이 여자가 남자보다 16% 더 높아 남녀차가 컸다. 그러나 1990년대에는 자신과 가족을 택한 비율이 여

표 2. “자신과 가족 중심 개인주의” 항목들에서 1998년에 두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한 비율(괄호 안은 1979년의 자료)

	1. 중요 사상		시대차 (z)	2. 떠날것이어야 할 것		시대차 (z)	3. 효도관		시대차 (z)	사례수(N) 98년(79년)
	중요함 : 중요치 않음			나 라 : 자신과 가족			부모봉양 : 출 세			
성 별										
남자	76.3(79.0)	23.5(21.0)	0.33	28.3(66.7)	71.7(33.3)	9.91***	61.2(52.3)	38.8(47.7)	-2.34*	392(300)
여자	72.8(81.7)	27.2(18.3)	2.82**	27.9(50.7)	71.8(49.3)	6.10***	52.0(53.7)	47.8(46.3)	0.39	408(300)
χ^2	n.s.			n.s.			6.78**			
연령별										
20 - 29세	58.4(74.7)	41.6(25.3)	3.93***	17.8(51.0)	82.0(49.0)	7.69***	46.1(51.0)	53.9(49.0)	1.10	219(300)
30 - 39세	78.5	21.5		30.5	69.5		59.2	40.4		223
40 - 49세	77.2	22.8		27.6	72.4		57.9	42.1		145
50 - 59세	86.8(86.0)	12.6(14.0)	-0.42	36.5(66.3)	62.9(33.7)	6.10***	65.3(55.0)	34.7(45.0)	-2.17*	167(300)
60세이상	78.3	21.7		37.0	63.0		56.5	43.5		46
χ^2	47.01***			20.03***			15.74**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81.4(89.5)	18.6(10.5)	2.18*	41.0(67.0)	59.0(33.0)	4.91***	65.4(61.5)	34.6(38.5)	-0.76	156(200)
고졸	76.4(83.5)	23.6(16.5)	1.93	27.5(65.5)	72.2(34.5)	8.42***	57.5(51.0)	42.5(49.0)	1.44	313(200)
대재 이상	69.5(68.0)	30.2(32.0)	0.44	22.7(43.5)	77.3(56.5)	5.05***	51.4(46.5)	48.3(53.5)	-1.16	331(200)
χ^2	8.51*			17.77***			8.48*			

주. 1998년의 자료에서 간혹 두 응답비율을 합해서 100%가 되지 않는 경우는 무응답(1% 미만) 때문이다. 1979년 조사에서는 교육수준과 지역규모를 합하여 “근대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설계하였음: 저학력이면서 농촌, 중학력이면서 서울, 그리고 고학력이면서 서울. 1979년의 50대 자료는 50세 이상 성인의 자료. 시대차 검증 방법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각 수준별로 각 문항의 두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한 비율(두 번째 선택지를 택한 비율을 중심으로 함)의 시대차에 대한 z검증을 실시함. χ^2 는 1998년의 자료에서 성차, 연령차, 및 교육수준의 차가 각각 유의한지의 여부를 알려 줌.

* $p < .05$. ** $p < .01$. *** $p < .001$.

자는 22.5%, 남자는 38.4% 증가하여 거의 같은 수준(남 71.7%: 여 71.8%)이 되었다. 현재는 남녀 모두 나라보다 자신과 가족을 더 중요시하는 상태이다. 또한 20대와 50대의 세대차도 1970년대부터 15.3%로 계속 커져, 세대차 증가분(3.8%)은 별로 크지 않았다(표11의 우측 참조).

표2의 문항3에서는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작은 지역에 살수록(지역규모별 $\chi^2=14.71$, $p<.001$) 출세보다 부모 봉양을 더 효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1970년대에는 부모 봉양보다 출세를 더 효도라고 생각하는 비율에 큰 세대차가 없었으나(4%), 1990년대에는 세대차가 19.2%로 증가하였다(표11 참조). 20대와 50대의 자료만 보면, 출세를 효도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1970년대에 비해 20대가 4.9% 증가하고 50대가 10.3% 감소하여 세대차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령별 분포를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30대 이상에서는 큰 변화가 없으나 20대에서 특히 출세를 효도라고 생각

하는 비율이 크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출세보다 부모 봉양을 더 효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60대 이상보다 50대가 더 높다는 사실은 이채롭다. 그러나 이런 결과는 60대 이상의 표본 수가 적었기 때문에 나온 오차일 수도 있다. 1970년대에는 출세보다 부모 봉양을 더 효도라고 생각하는 비율에서 남녀차가 거의 없었으나, 1990년대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오히려 더 출세보다 부모 봉양을 효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표2의 세 문항들 간 상관관계수를 살펴 보면, 문항1과 문항3($r=.203$, $p<.001$), 문항1과 문항2($r=.141$, $p<.001$)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문항2와 문항3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2) 탈권위주의

표3은 탈권위주의 문항들의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문항4의 전체적인 응답 비율을 보면, 1970년대와 대체로 유사하게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고분고분한 사람을 선호하는 경향이 보인다.

표 3. “탈권위주의” 항목들에서 1998년에 두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한 비율(괄호 안은 1979년의 자료)

	4. 사람을 고용할 때			5. 사회질서 유지			6. 뒷사람 틀릴 때			전체(N) 98년(79년)
	고분고분 : 책임감		시대차 (z)	상하구별 : 직능구분		시대차 (z)	모른척 : 지적		시대차 (z)	
성 별										
남자	31.4(26.7)	68.6(73.3)	-1.35	68.1(72.7)	31.9(27.3)	1.31	9.4(13.0)	90.6(87.0)	1.50	392(300)
여자	29.2(39.7)	70.8(60.3)	2.92**	71.1(73.0)	28.9(27.0)	0.57	16.4(39.0)	83.3(61.0)	5.88***	408(300)
χ^2	n.s.			n.s.			8.70**			
연령별										
20 - 29세	25.1(28.6)	74.9(71.4)	0.05	63.5(73.7)	36.5(26.3)	2.49*	8.2(12.3)	91.3(87.7)	1.30	219(300)
30 - 39세	25.6	74.4		62.8	37.2		8.5	91.5		223
40 - 49세	33.8	66.2		73.1	26.9		14.5	85.5		145
50 - 59세	37.7(37.6)	62.3(62.4)	-0.02	82.0(72.0)	18.0(28.0)	-2.42*	20.4(17.3)	79.6(82.7)	-0.83	167(300)
60세이상	39.1	60.9		76.1	23.9		26.1	73.9		46
χ^2	12.07*			22.76***			23.51***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36.5(42.5)	63.5(57.5)	1.15	71.8(69.5)	28.2(30.5)	-0.47	21.8(26.0)	78.2(74.0)	0.92	156(200)
고졸	30.0(36.0)	70.0(64.0)	1.42	75.1(75.0)	24.9(25.0)	-0.03	12.1(12.0)	87.5(88.0)	-0.17	313(200)
대재 이상	27.5(21.0)	72.5(79.0)	-1.68	63.4(74.0)	36.6(26.0)	2.53*	9.7(6.5)	90.3(93.5)	-1.29	331(200)
χ^2	n.s.			10.73**			14.09***			

주. 1998년의 자료에서 간혹 두 응답비율을 합해서 100%가 되지 않는 경우는 무응답(1% 미만) 때문임. 1979년 조사에서는 교육수준과 지역규모를 합하여 “근대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설계하였음: 저학력이면서 농촌, 중학력이면서 서울, 그리고 고학력이면서 서울. 1979년의 50대 자료는 50세 이상 성인의 자료. 시대차 검증 방법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각 수준별로 각 문항의 두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한 비율(두 번째 선택지를 택한 비율을 중심으로 함)의 시대차에 대한 z검증을 실시함. χ^2 는 1998년의 자료에서 성차, 연령차, 및 교육수준의 차가 각각 유의한지의 여부를 알려 줌.

* $p < .05$. ** $p < .01$. *** $p < .001$.

1970년대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고분고분한 사람을 선호하는 경향이 조금 더 높았으나(13% 차이), 1990년대 말에는 여성과 남성이 비슷한 정도로(여자가 오히려 2.2% 더) 고분고분함보다 일의 수행(책임감)을 중요시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자가 더 큰 시대변화($z=2.92$, $p<.01$)를 겪었음을 말해 준다. 이 문항의 경우 1970년대부터 세대차가 비교적 커서(9.0%), 증가분(3.6%)은 별로 크지 않지만, 지금도 여전히 세대차가 큰(12.6%) 문항에 속한다(표11 참조).

표3의 문항5의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나라는 직능의 구분보다 상하 구별을 더 중요시하며, 특히 40대 이상이 그런 경향을 더 강하게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 - 30대는 40대 이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능의 구분을 더 중요시한다. 50대가 특히 상하 구별이 분명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다는 사실이 특기할 만하다. 시대변화를 비교적 많이 보인 집단은 20대($z=2.49$, $p<.05$)와 고학력자($z=2.53$, $p<.05$)이며, 50대의 경우는 이 문항에서 특히 시대변

화에 역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z=-2.42$, $p<.05$).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 상하구별보다 직능의 구분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비율에서, 1970년대에 비해 세대차와 학력차가 모두 증가했다. 특히 20대와 50대의 세대차가 1970년대의 1.7%에서 1990년대의 18.5%로 크게 증가한 점이 주목된다(표11 참조). 1970년대에는 성별, 교육수준, 및 연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1990년대에는 여자보다 남자가 3%, 50대보다 20대가 18.5%, 그리고 저학력자보다 고학력자가 8.4% 더 직능구분을 중요시하는 쪽으로 변화했다는 사실도 드러나고 있다.

표3의 문항6에서는, 뒷사람이 틀렸을 때 지적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녀 모두 증가하기는 했으나, 남자는 3.6%, 여자는 22.3% 증가하여 여자의 시대변화 폭이 훨씬 더 크다($z=5.88$, $p<.001$). 그 결과, 1970년대에 26%에 달하던 남녀차가 1990년대에는 7.3%로 줄어들었으며, 1990년대의 여자가 거의 1970년대의 남자 수준으로 뒷사람의 잘못을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1970년대에는 윗사람이 틀렸을 때 지적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에 세대차가 거의 없었으나, 1990년대에는 20대는 3.6% 증가하고 50대는 3.1% 감소하여 세대차가 6.7% 더(5%에서 11.7%로) 커졌다(표11 참조).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1970년대에 저 - 고학력 19.5% 차에서 1990년대에 12.1% 차로 약간 줄어들었다.

표3의 세 문항들 간 상관계수를 살펴 보면, 문항4와 문항6($r=.101, p<.01$)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문항5는 문항4 및 문항6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3) 자기주장성(남성성-여성성)

표4의 문항7에서 함께 행복하려면 불만을 참기보다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970년대에는 큰 남녀차를 보였다(남자 81.0%, 여자 48.0%). 그러나 1990년대에는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는 비율이 남자는 65.8%로 줄어든 반면($z=-4.43, p<.001$) 여자는 66.4%로 늘어($z=4.91, p<.001$), 여자는 참고 남자는 요구하

던 과거의 남녀차가 없어지면서 중간 정도의 합의점이 찾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998년 현재 젊은 층일수록, 고학력일수록 불만을 참지 않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경향도 눈에 띈다. 함께 행복하려면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1970년대에 비해 모두 증가하기는 했으나, 50대가 10.7% 증가한 데 비해($z=2.23, p<.05$) 20대는 14.8% 증가하여($z=3.71, p<.001$) 역시 젊은 층의 변화 폭이 크다. 이로 인해 1970년대(24.0%)에 비해 1990년대(28.1%)의 세대차가 조금 더 커지기는 했으나(표11 참조), 이 항목은 1970년대부터 계속 세대차가 큰 대표적인 항목이다. 학력차는 1970년대의 22%에서 1990년대의 17.7%로 약간 줄어들었다. 이는 고학력층보다 저학력층의 시대변화 폭이 조금 더 큰 데 기인한 것이다.

표4의 문항8을 보면 전반적으로 1970년대에 비해 1990년대에 실력과시보다 겸손을 더 중요시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자기주장성의 증가

표 4. “자기주장성(남성성-여성성)” 항목들에서 1998년에 두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한 비율(괄호 안은 1979년의 자료)

	7. 함께 행복하려면		시대차	8. 겸손과 실력과의 중		시대차	9. 낙오자 도태 경향		시대차	전체(N)
	인 내 : 시정요구		(z)	겸 손 : 실력 드러냄		(z)	자연적 귀결 : 슬픈 일		(z)	98년(79년)
성 별										
남자	34.2(19.0)	65.8(81.0)	-4.43***	80.9(62.7)	19.1(37.3)	-5.25***	40.1(23.3)	59.9(76.7)	-4.62***	392(300)
여자	33.6(52.0)	66.4(48.0)	4.91***	77.7(68.3)	22.3(31.7)	-2.81**	35.0(24.3)	64.7(75.7)	-3.13**	408(300)
χ^2	n.s.			n.s.			n.s.			
연령별										
20 - 29세	19.2(34.0)	80.8(66.0)	3.71***	73.1(66.0)	26.9(34.0)	-1.73	39.3(25.7)	60.7(74.3)	-3.29**	219(300)
30 - 39세	27.8	72.2		78.5	21.5		38.1	61.9		223
40 - 49세	41.4	58.6		86.9	13.1		37.9	62.1		145
50 - 59세	47.3(58.0)	52.7(42.0)	2.23*	80.2(65.0)	19.8(35.0)	-3.45***	34.7(22.0)	64.7(78.0)	-3.11**	167(300)
60세이상	60.9	39.1		84.8	15.2		34.8	65.2		46
χ^2	56.85***			11.30*			n.s.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45.5(57.5)	54.5(42.5)	2.25*	80.8(68.5)	19.2(31.5)	-2.62**	30.1(14.0)	69.2(86.0)	-3.84***	156(200)
고졸	34.5(45.0)	65.5(55.0)	2.38*	84.3(70.0)	15.7(30.0)	-3.85***	37.4(28.0)	62.6(72.0)	-2.20*	313(200)
대재 이상	27.8(35.5)	72.2(64.5)	1.86	73.7(58.0)	26.3(42.0)	-3.76***	41.1(29.5)	58.9(70.5)	-2.69**	331(200)
χ^2	14.95***			11.32**			5.22(p = .0734)			

주. 1998년의 자료에서 간혹 두 응답비율을 합해서 100%가 되지 않는 경우는 무응답(1% 미만) 때문임. 1979년 조사에서는 교육수준과 지역규모를 합하여 “근대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설계하였음: 저학력이면서 농촌, 중학력이면서 서울, 그리고 고학력이면서 서울. 1979년의 50대 자료는 50세 이상 성인의 자료. 시대차 검증 방법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각 수준별로 각 문항의 두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한 비율(두 번째 선택지를 택한 비율을 중심으로 함)의 시대차에 대한 z검증을 실시함. χ^2 는 1998년의 자료에서 성차, 연령차, 및 교육수준의 차가 각각 유의한지의 여부를 알려 줌.

* $p < .05$. ** $p < .01$. *** $p < .001$.

와는 대조적인 것으로, 여성적인 쪽으로의 변화를 시사하는 것이다. 결혼을 중요시하는 여성적인 쪽으로의 시대변화는 남자, 고연령층, 및 고학력층이 더 큰 폭으로 일어나고 있다(표4의 z점수 참조). 한편, 이 문항에서도 세대차는 더 커졌다. 즉, 1970년대에는 20대와 50대가 비슷한 정도로 결혼을 중요시하여 세대차를 거의 보이지 않았으나(1%), 1990년대에는 50대(80.2%)가 20대(73.1%)보다 결혼을 중요시하는 비율이 7.1% 더 높아 세대차가 조금 커졌음을 알 수 있다(표11 참조). 연령이 증가할수록 여성성도 증가한다는 Hofstede(1991)의 지적을 상기하면, 다른 항목들과는 달리 결혼을 강조하는 여성성 쪽으로의 변화는 고연령층이 조금 더 빠르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결과는 “결혼” 항목의 경우 연령증가(aging)에 의한 변화와 문화의 변화가 같은 방향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표12 참조).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실력파시보다 결혼이 일종의 “도덕적 정당”에 가까운 응답이기 때문에, 보다 “정당”에 근접한 방향으로의 변화욕구가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다.

표4의 문항9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저학력일수록 낙오자 도태는 슬픈 일이며 낙오자를 구제해야 한다고 보는 경향이 눈에 띈다. 그리고 1970년대에 비해 전반적으로 생존경쟁을 더 당연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즉, 낙오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비율이 낮아짐으로써 더 경쟁적인 방향(성취지향, 남성성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Hofstede(1991)의 남성성-여성성 차원을 (1)삶의 질과 부드러움(예: 결혼)을 중요시하는 요인과 (2)자기주장성과 성취를 중요시하는 요인으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Hofstede(1991)는 미래의 사회가 여성적인 쪽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1)삶의 질과 부드러움 중시 경향에서만 그렇고 (2)자기주장성과 성취 중시 경향에서는 오히려 남성적인 쪽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한다. 후자는 개인주의의 증가 경향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한편, 전체적인 비율을 보면 한국인은 아직도 낙오자 도태는 자연적 귀결이라기보다는 슬픈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아, 강자보다 약자에 공감하는

여성적 성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세대차의 증감은 거의 없이(0.3%) 모두 생존경쟁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표11 참조). 1970년대에는 보이지 않던 남녀차가 생긴 점도 주목된다. 즉, 1970년대에는 낙오자 도태를 자연적 귀결로 보던 비율이 남녀 모두 24% 안팎으로 비슷했으나, 1990년대에는 여자(35.0%)보다 남자(40.1%)가 더 경쟁적인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표4의 세 문항들 간 상관계수를 살펴 보면, 문항7과 문항8($r=.080, p<.05$), 문항7과 문항9($r=.122, p<.01$), 및 문항8과 문항9($r=.102, p<.01$) 간에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문항9의 응답은 역으로 코딩함: 부록 A 참조).

(4) 불확실성 회피 성향

표5의 문항10은 시대변화가 비교적 큰 항목 중의 하나다(표11 참조). 대체로 서두르기보다 여유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졌으며(11%의 시대변화), 1970년대에 보이던 학력차가 없어졌다. 즉, 1970년대에는 고학력일수록 여유있는 마음을 중요시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1990년대에는 고학력층의 변화는 거의 없고(0.5%) 저학력층의 급격한 변화(18.4%, $z=-3.52, p<.001$)로 인해 여유를 중요시하는 생각이 학력에 관계없이 비슷해졌다. 이는 비록 근대 국제통화기금(IMF) 시대를 맞아 경제적 여건이 조금 후퇴하기는 했으나, 1970년대에 비해서는 전반적인 경제수준(특히 저학력층의 최저생활 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여유를 중요시하는 비율에서 20대보다 50대의 변화 폭이 더 크다는 점이다. 즉, 20대는 1970년대에 비해 여유를 중요시하는 비율에서 약 3.9%의 증가만을 보인 반면, 50대는 11.6%의 증가($z=-2.47, p<.05$)를 보이고 있다. 인생의 “여유”도 역시 표4에서 말한 “결혼”과 마찬가지로 여성적인 쪽의 변화로서, 대부분의 다른 문항들과 달리 단순한 연령 증가에 의한 변화와 문화의 변화가 같은 방향으로 일어나는 항목이라고 볼 수 있겠다(표12 참조). 그렇다면, 일을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것, 즉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과연 불확실성 회피 성향으

표 5. “불확실성 회피” 항목들에서 1998년에 두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한 비율(괄호 안은 1979년의 자료)

	10. 인생 사는 지혜 여유있게 : 서두른다			11. 외국인 대할 때 더친절 : 똑같이/덜친절			12. 처음보는 사람 친절히 : 경계해야		전체(N) 98년(79년)
		시대차 (z)			시대차 (z)				
성 별									
남자	67.3(55.3)	32.1(44.7)	-3.39***	84.9(80.3)	15.1(19.7)	-1.59	90.1	9.9	392(300)
여자	69.1(60.0)	30.6(40.0)	-2.60**	87.0(83.7)	13.0(16.3)	-1.24	83.8	15.9	408(300)
χ^2		n.s.			n.s.			6.39*	
연령별									
20 - 29세	62.6(58.7)	37.0(41.3)	-0.99	83.6(79.0)	16.4(21.0)	-1.32	92.2	7.8	219(300)
30 - 39세	70.0	29.1		82.1	17.9		87.9	12.1	223
40 - 49세	73.8	26.2		93.8	6.2		80.7	18.6	145
50 - 59세	68.3(56.7)	31.7(43.3)	-2.47*	86.2(85.0)	13.8(15.0)	-0.35	84.4	15.6	167(300)
60세이상	69.6	30.4		91.3	8.7		84.8	15.2	46
χ^2		n.s.			12.35*			10.84*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69.9(51.5)	30.1(48.5)	-3.52***	86.5(81.0)	13.5(19.0)	-0.44	80.1	19.9	156(200)
고졸	68.1(54.0)	31.3(46.0)	-3.36***	87.5(79.0)	12.5(21.0)	-2.58**	85.9	14.1	313(200)
대졸 이상	67.7(67.5)	32.0(32.5)	-0.12	84.3(86.0)	15.7(14.0)	0.53	90.9	8.8	331(200)
χ^2		n.s.			n.s.			11.99**	

주. 1998년의 자료에서 간혹 두 응답비율을 합해서 100%가 되지 않는 경우는 무응답(1% 미만) 때문임. 1979년 조사에서는 교육수준과 지역규모를 합하여 “근대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설계하였음: 저학력이면서 농촌, 중학력이면서 서울, 그리고 고학력이면서 서울. 1979년의 50대 자료는 50세 이상 성인의 자료. 시대차 검증 방법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각 수준별로 각 문항의 두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한 비율(두 번째 선택지를 택한 비율을 중심으로 함)의 시대차에 대한 z검증을 실시함. χ^2 는 1998년의 자료에서 성차, 연령차, 및 교육수준의 차가 각각 유의한지의 여부를 알려 줌.

* $p < .05$. ** $p < .01$. *** $p < .001$.

로 보아야 할 지 아니면 여성적 문화 속의 성취지향성(즉, 남성성)으로 보아야 할 지 의문점이 생긴다. 인생의 여유를 중요시하는 측면과 “빨리빨리” 문화가 공존하는 한국 문화의 특성에 관해서도 차후에 보다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 검토해 본다면 흥미로운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표5의 문항11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대체로 외국사람에게 더 친절해야 한다는 비율이 높아졌다. 이는 불확실성을 수용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의미하지 만, 고졸 학력자 집단을 제외하고는 시대차 검증 결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외국사람에게 더 친절해야 한다는 비율이 1970년대와 1990년대 모두 20대보다 50대가 더 높으나, 1970년대에는 6%였던 세대차가 1990년대에는 2.6%로 줄어들었다. 이번 조사 항목 가운데 유일하게 세대차가 줄어든 항목이다(표11 참조).

표5의 문항12의 결과를 보면, 대체로 처음 보는 사람에게 친절해야 한다는 비율이 높지만, 학력이 낮을 수록, 그리고 남성보다 여성이 처음 보는 사람을 경

계하는 경향이 있었다. 대체로 처음 보는 사람에게 친절해야 한다는 비율은 20대가 가장 높고(92.2%) 40대가 가장 낮았다(80.7%).

표5의 세 문항들 간 상관계수를 살펴 보면, 문항10과 문항11($r=.073$, $p<.05$), 문항11과 문항12($r=.101$, $p<.01$)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문항10과 문항12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5) 미래지향성

표6의 문항13에서는 시대변화와 세대차 증감 폭이 모두 크지 않았다(표11 참조). 1970년대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조금 더 미래지향적(미래보다 과거 버림)이었으나, 1990년대에는 미래지향적인 남자의 비율이 약간 높아져 남녀차가 없어졌다. 그리고 1970년대에는 미래보다 과거를 버리겠다고 응답한 20대와 50대의 비율이 거의 비슷했으나, 1990년대에는 20대보다 50대가 오히려 더 미래지향적인 쪽의 응답을 많이 택했다는 점이 이채롭다($z=2.10$, $p<.05$). 1970년대와 대체로 유사하게, 1990년대에도 학력이 높을수록 미래

표 6. “미래지향성” 항목들에서 1998년에 두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한 비율(괄호 안은 1979년의 자료)

	13. 과거와 미래 중 버릴 것		시대차	14. 현재와 미래 중 택할 것		15. 전통적인 풍습		시대차	전체(N)
	미래 버림 : 과거 버림		(z)	현재 즐김:미래 대비함		문명위기 극복:도움 안됨		(z)	98년(79년)
성 별									
남자	8.7(13.3)	91.1(86.7)	1.85	14.8	85.2	76.5(79.7)	23.2(20.3)	0.91	392(300)
여자	6.4(7.0)	93.6(93.0)	0.32	19.4	80.6	78.2(78.3)	21.6(21.7)	-0.03	408(300)
χ^2	n.s.				2.94(p = .0865)	n.s.			
연령별									
20 - 29세	9.1(10.0)	90.0(90.0)	0.00	23.7	76.3	74.9(79.0)	25.1(21.0)	1.10	219(300)
30 - 39세	4.9	95.1		15.2	84.8	74.0	25.1		223
40 - 49세	9.0	91.0		13.8	86.2	79.3	20.7		145
50 - 59세	4.2(10.4)	95.2(89.6)	2.10*	13.8	86.2	82.0(79.0)	18.0(21.0)	-0.78	167(300)
60세이상	19.6	80.4		17.4	82.6	82.6	17.4		46
χ^2	15.62**				9.77*	n.s.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9.6(17.5)	89.7(82.5)	1.93	16.7	83.3	76.9(75.0)	22.4(25.0)	-0.57	156(200)
고졸	8.9(8.0)	91.1(92.0)	-0.36	15.7	84.3	78.3(76.5)	21.4(23.5)	-0.56	313(200)
대졸 이상	5.1(5.0)	94.9(95.0)	-0.05	18.7	81.3	76.7(85.5)	23.3(14.5)	2.46*	331(200)
χ^2	n.s.				n.s.	n.s.			

주. 1998년의 자료에서 간혹 두 응답비율을 합해서 100%가 되지 않는 경우는 무응답(1% 미만) 때문임. 1979년 조사에서는 교육수준과 지역규모를 합하여 “근대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설계하였음: 저학력이면서 농촌, 중학력이면서 서울, 그리고 고학력이면서 서울. 1979년의 50대 자료는 50세 이상 성인의 자료. 시대차 검증 방법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각 수준별로 각 문항의 두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한 비율(두 번째 선택지를 택한 비율을 중심으로 함)의 시대차에 대한 z검증을 실시함. χ^2 는 1998년의 자료에서 성차, 연령차, 및 교육수준의 차가 각각 유의한지의 여부를 알려 줌.

* $p < .05$. ** $p < .01$. *** $p < .001$.

지향적이다. 그러나 1970년대에 비해 저학력층이 미래지향적인 쪽으로 변화한 폭이 조금 더 컸다(7.2%).

표6의 문항14에서는 남자보다 여자, 30대 이상보다 20대, 대도시 거주자들이 대체로 미래를 대비하기보다 현재를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 문항의 경우 1970년대와의 비교는 불가능하나, 1998년 현재 20대와 50대의 세대차는 9.9%로서 큰 편이다(표11 참조). 또한 서울 거주자들(190명의 23.7%)이 중부권(280명의 17.1%), 호남권(94명의 13.8%), 및 영남권(236명의 13.1%) 거주자들에 비해 미래를 대비하기보다 현재를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chi^2_{(3)}=9.13$, $p<.05$. 그러나 여기서 인과관계에 관한 결론은 내릴 수 없다. 즉, 서울에 살기 때문에 현재를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지, 아니면 현재를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울에 살게 되었는지, 아니면 제3의 요인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모두 유발되었는지는 이 조사의 결과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표6의 문항15의 경우, 1970년대에는 세대차가 전혀 없었으나 1990년대에는 연령이 높을수록 전통적인 풍습이 오늘날의 문명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경향이 약간 보였다. 즉, 1990년대에는 50대와 20대의 세대차가 7.1% 정도로 커졌다. 또한 지역차가 크게 유의했는데, 서울(190명의 68.4%)과 호남권(94명의 71.3%)에 비해 중부권(280명의 83.2%)과 영남권(236명의 80.1%)이 전통을 더 중요시하는 비율이 높았다, $\chi^2_{(3)}=16.75$, $p<.001$. 특히 고학력층 중에 1970년대에는 전통 풍습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유난히 낮았으나(14.5%), 1990년대에는 이 비율이 23.3%로 유의하게 높아졌다($z=2.46$, $p<.05$).

표6의 세 문항들 간 상관계수를 살펴 보면, 문항13과 문항14($r=.299$, $p<.001$), 문항13과 문항15($r=.074$, $p<.05$), 및 문항14와 문항15($r=.172$, $p<.001$) 간에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6) 남녀평등 의식

표7의 문항16은 시대변화와 세대차 증가가 모두 큰

표 7. “남녀평등 의식” 항목들에서 1998년에 두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한 비율(괄호 안은 1979년의 자료)

	16. 처녀의 정조			17. 결혼한 여자			18. 결혼한 여자			전체(N) 98년(79년)
	지켜야 : 지키지 않아도	시대차 (z)		활동해야 : 가정 안	시대차 (z)		시집총성 : 시집=친정	시대차 (z)		
성 별										
남자	69.9(86.3)	29.8(13.7)	5.00***	59.9(36.3)	39.8(63.7)	-6.22***	38.8(68.0)	60.7(32.0)	7.47***	392(300)
여자	72.1(89.7)	27.9(10.3)	5.73***	71.1(42.7)	28.9(57.3)	-7.59***	25.5(58.7)	73.0(41.3)	8.48***	408(300)
χ^2	n.s.			10.68**			15.54***			
연령별										
20 - 29세	54.8(80.7)	45.2(19.3)	6.35***	72.6(38.7)	27.4(61.3)	-7.64***	23.7(55.0)	74.9(45.0)	6.81***	219(300)
30 - 39세	65.0	34.5		65.0	34.5		26.0	72.2		223
40 - 49세	81.4	18.6		61.4	38.6		32.4	67.6		145
50 - 59세	87.4(95.3)	12.6(4.7)	3.11**	62.3(40.4)	37.7(59.6)	-4.54***	46.1(71.7)	53.3(28.3)	5.36***	167(300)
60세이상	84.8	15.2		60.9	39.1		47.8	52.2		46
χ^2	65.24***			n.s			30.19***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87.2(88.5)	12.2(11.5)	0.20	62.2(60.5)	37.8(39.5)	-0.33	44.9(75.0)	53.8(25.0)	5.57***	156(200)
고졸	75.1(87.5)	24.9(12.5)	3.42***	62.0(29.0)	37.7(71.0)	-7.35***	28.1(66.0)	71.2(34.0)	8.29***	313(200)
대재 이상	59.5(88.0)	40.5(12.0)	6.97***	70.7(29.0)	29.3(71.0)	-9.37***	29.6(49.0)	69.2(51.0)	4.20***	331(200)
χ^2	44.91***			6.24*			15.27***			

주. 1998년의 자료에서 간혹 두 응답비율을 합해서 100%가 되지 않는 경우는 무응답(1.8% 이하) 때문임. 1979년 조사에서는 교육수준과 지역규모를 합하여 “근대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설계하였음: 저학력이면서 농촌, 중학력이면서 서울, 그리고 고학력이면서 서울. 1979년의 50대 자료는 50세 이상 성인의 자료. 시대차 검증 방법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각 수준별로 각 문항의 두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한 비율(두 번째 선택지를 택한 비율을 중심으로 함)의 시대차에 대한 z검증을 실시함. χ^2 는 1998년의 자료에서 성차, 연령차, 및 교육수준의 차가 각각 유의한지의 여부를 알려 줌.

* $p < .05$. ** $p < .01$. *** $p < .001$.

두 항목 중 하나이다(표11 참조). 시대변화와 세대차 증가가 모두 큰 다른 한 항목은 “깨끗한 인생보다 풍부한 인생”을 선호하는 경향이다(표8의 문항20 결과 참조). 전체적으로 1970년대에 비해 꼭 정조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추세이다. 1970년대에는 정조를 꼭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12%에 그쳤으나 1990년대에는 무려 16.85%나 증가한 28.85%로서, 정조관념에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화가 아주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말해 준다(표11 참조). 특히 50대는 4.7%에서 12.6%로 7.9% 정도 높아졌으나($z=3.11$, $p<.01$) 20대는 19.3%에서 45.2%로 25.9%나 높아져($z=6.35$, $p<.001$), 젊은 층의 변화 폭이 훨씬 크다. 세대차가 1970년대부터 14.6%로 원래 컸으나, 1990년대에는 32.6%로 더욱 크게(18%) 증가하였다(표11 참조).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젊은 층, 고학력, 전문관리직(46.2%)과 학생들(43.4%)이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주부(19.4%), 농어민(8.3%), 그리고

저학력층이 이러한 경향에 가장 보수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직업별 분포를 보면 전문관리직(26명)의 46.2%, 학생(83명)의 43.4%, 사무직(159명)의 31.4%, 생산기능직(188명)의 29.8%, 기타/무직(53명)의 28.3%, 자영업(112명)의 26.8%, 주부(155명)의 19.4%, 및 농어민(24명)의 8.3% 순으로 처녀의 정조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직업별 차이가 크게 유의하였다, $\chi^2_{(7)}=24.81$, $p<.001$. 1970년대에는 학력차가 거의 없다(0.5%), 지난 20년 간 혼전순결에 관한 저학력층의 생각은 거의 변하지 않았으나 학력이 높을수록 급격히 개방적으로 변화하여(표7의 좌측 하단부 교육수준별 z값 참조), 1998년 현재 학력차가 28.3%로 매우 커졌다.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정조에 엄매이지 않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표7의 문항17도 시대변화가 가장 급격한 항목 중 하나이다(표11 참조). 1970년대에는 반수 이상이 결혼한 여자의 자리는 역시 가정 안이라고 응답했으나, 1990년대에는 반수 이상이 결혼한 여자도 활동을 해

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1970년대에 비해 여자도 활동을 해야 한다는 비율이 남녀노소 모두 높아지면서, 특히 여자, 젊은 층, 및 고학력자일수록 결혼한 여자도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표7의 중앙에 있는 z값들의 증가 경향 참조). 특기할 만한 점은 1970년대에는 고학력자가 오히려 더 결혼한 여자의 자리는 가정 안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으나(남자는 저·중·고학력으로 갈수록 가정 안을 택한 비율이 35.0%, 75.0%, 81.0%로 점차 높아져 평균 63.7%; 여자는 저·중·고학력이 각각 44.0%, 67.0%, 61.0%로 학력차가 남자에 비해 적으면서 평균 57.3%), 지난 20년 간 저학력자의 생각은 거의 변하지 않은 반면(여성 활동 지지 쪽으로 1.7% 증가), 중학력(33% 증가, $z=-7.35$, $p<.001$) 및 고학력자(41.7% 증가, $z=-9.37$, $p<.001$)의 생각이 결혼한 여자의 활동을 지지하는 쪽으로 아주 크게 변화했다는 점이다.

표7의 문항18은 시대변화가 가장 큰 항목이다(표11 참조). 친정을 시댁과 똑같이 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남녀 모두 크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존재하던 남녀차는 1990년대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친정을 시댁과 똑같이 중시하는 비율이 남자보다 여자가 더 높기는 하지만, 남자도 반수가 넘는 60.7%가 본가와 처가를 똑같이 중시한다고 보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또한, 젊은 층일수록 시댁과 친정(또는 본가와 처가)을 똑같이 중시하는 비율이 높아 세대차가 1970년대부터 16.7%로 계속 크고, 세대차의 증가분(4.9%)은 별로 크지 않지만 지금도 여전히 큰 세대차(21.6%)가 존재하는 항목이다(표11 참조). 친정과 시댁을 똑같이 중시하는 경향(즉, 과거에 비해 친정의 중요도가 높아진 경향)을 주도하는 층은 젊은 층, 고학력, 전문직(76.9%)과 학생(74.7%), 서울 및 대도시 거주자들이었다. 지역규모별로 보면, 대도시 거주자(404명)의 71%, 중소도시 거주자(277명)의 64.6%, 그리고 읍면 이하 거주자(119명)의 58.8%가 친정과 시댁을 똑같이 대해야 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었다, $\chi^2_{(2)}=7.13$, $p<.05$.

표7의 세 문항들 간 상관계수를 살펴 보면, 문항16

과 문항17($r=.136$, $p<.001$), 문항16과 문항18($r=.163$, $p<.001$), 및 문항17과 문항18($r=.089$, $p<.05$) 간에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문항17의 응답은 역으로 코딩함: 부록 A 참조). 남녀평등 의식을 나타내는 표7의 세 문항 모두 아주 큰 시대변화를 보이고 있고, 특히 남자보다 여자가, 그리고 50대보다 20대가 더욱 큰 폭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 일관성있게 드러나고 있다.

(7) 풍요로운 생활

표8의 문항19에서는 1970년대에 비해 20대와 50대가 모두 “돈은 꼭 있어야 하고 없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유의하지는 않으나 약간씩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1970년대와 마찬가지로 50대가 20대보다 돈의 필요성을 더 크게 평가하였다. 연령과 돈의 필요성에 대한 지각 간의 관계는 대략 역전된 U모양의 곡선을 보이는데, 이는 중년층이 돈의 필요성을 가장 크게 지각함을 의미하므로 인생의 주기와 관련된 현실적인 돈의 필요성과 직결되는 결과로 보인다.

표8의 문항20은 시대변화도 크고(14.20%), 세대차도 1970년대부터 계속 크고(14.3%), 세대차 증가분도 가장 큰(22.8%) 항목이다(표11 참조). 따라서 현재의 세대차도 37.1%로서 가장 크다. 1970년대에 비해 인생을 풍부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크게 높아졌으며, 특히 50대(5.4%)보다 20대(28.2%, $z=6.38$, $p<.001$)의 변화 폭이 훨씬 큼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남자보다 여자, 젊은 층, 고학력일수록 인생을 풍부하게 사는 것이 좋다고 보는 경향이 있었다. 학력차는 17%에서 29.3%로 증가했는데, 이는 저학력층은 거의 변화가 없으나(풍부한 인생 선호 비율 1.8% 증가), 고학력층이 크게 변화(14.1% 증가, $z=3.17$, $p<.01$)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규모별로 보면, 대도시 거주자(404명)의 54%, 중소도시 거주자(277명)의 48.4%, 그리고 읍면 이하 거주자(119명)의 41.2%가 깨끗한 인생보다 풍부한 인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_{(2)}=6.56$, $p<.05$.

표8의 문항21에서는 크게 유의하지는 않지만 교육수준이 높고 지역규모가 클수록 직업에 귀천이 있다

표 8. “풍요로운 생활” 항목들에서 1998년에 두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한 비율(괄호 안은 1979년의 자료)

	19. 돈이란 것은			20. 인생을 잘 사는 것			21. 직업 귀천			전체(N) 98년(79년)
	있어도없어도: 꼭 있어야			깨끗이올게 : 풍부하게			있다 : 없다			
	시대차 (z)			시대차 (z)			시대차 (z)			
성 별										
남자	24.0(33.0)	76.0(67.0)	2.62**	52.3(65.3)	46.9(34.7)	3.22**	32.0(38.0)	67.3(62.0)	1.45	392(300)
여자	23.0(30.3)	77.0(69.7)	2.19*	46.8(63.0)	53.2(37.0)	4.16***	30.9(44.3)	69.1(55.7)	3.65***	408(300)
χ^2	n.s.			2.76(p = .0967)			n.s.			
연령별										
20 - 29세	34.2(36.6)	65.8(63.4)	0.56	28.8(57.0)	71.2(43.0)	6.38***	33.3(41.4)	66.7(58.6)	1.88	219(300)
30 - 39세	18.4	81.6		44.8	54.7		27.8	72.2		223
40 - 49세	15.2	84.8		60.7	38.6		34.5	64.8		145
50 - 59세	20.4(26.7)	79.6(73.3)	1.52	65.9(71.3)	34.1(28.7)	1.22	32.3(41.0)	67.7(59.0)	0.19	167(300)
60세이상	34.8	65.2		76.1	21.7		28.3	69.6		46
χ^2	27.08***			79.47***			n.s.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25.0(34.5)	75.0(65.5)	0.61	68.6(71.0)	30.8(29.0)	0.12	24.4(42.0)	75.0(58.0)	1.06	156(200)
고졸	19.2(33.0)	80.8(67.0)	3.54***	50.2(67.5)	49.2(32.5)	3.73***	31.0(37.5)	68.7(62.5)	0.14	313(200)
대재 이상	26.9(27.5)	73.1(72.5)	0.16	39.9(54.0)	60.1(46.0)	3.17**	35.3(43.5)	64.7(56.5)	1.89	331(200)
χ^2	n.s.			36.02***			5.79(p = .0553)			

주. 1998년의 자료에서 간혹 두 응답비율을 합해서 100%가 되지 않는 경우는 무응답(2.2% 이하) 때문임. 1979년 조사에서는 교육수준과 지역규모를 합하여 “근대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설계하였음: 저학력이면서 농촌, 중학력이면서 서울, 그리고 고학력이면서 서울. 1979년의 50대 자료는 50세 이상 성인의 자료. 시대차 검증 방법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각 수준별로 각 문항의 두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한 비율(두 번째 선택지를 택한 비율을 중심으로 함)의 시대차에 대한 z검증을 실시함. χ^2 는 1998년의 자료에서 성차, 연령차, 및 교육수준의 차가 각각 유의한지의 여부를 알려 줌.

* $p < .05$. ** $p < .01$. *** $p < .001$.

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대도시 34.7%, 중소도시 28.9%, 읍면 이하 26.9%). 서울(전체 표본 190명)과 호남권(94명) 사람들은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보는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고(각각 42.1%와 41.5%), 중부권(280명)과 영남권(236명) 사람들은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보는 비율이 타지역보다 낮았다(각각 23.9%와 28%), $\chi^2_{(3)}=23.29$, $p<.001$.

표8의 세 문항들 간 상관계수를 살펴 보면, 문항20과 문항21($r=.082$, $p<.05$) 간에 약하지만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문항19는 문항20 및 문항21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문항21의 응답은 역으로 코딩함: 부록 A 참조).

2. 1998년 가치관의 차원별 합산점수

본 조사에서 각 문화차원 내의 항목들 간 상관관계가 그리 높게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와 같이 하나하나의 문항별로 분석한 결과가 더 신뢰롭겠으나, 전반적인 경향을 개략적으로 요약해 보기 위해

차원별 합산 점수를 구해 보았다. 1998년의 가치관 조사결과를 각 차원별로 합산하여 인구통계학적 변인 별로 요약해 놓은 것이 표9이다. 이 표는 각 문항마다 두 선택지 중 주로 짧은 층이 선호하는 응답 쪽을 1점, 다른 쪽을 0점으로 하여, 각 차원의 세 문항씩 점수를 합한 것이다. 그러므로 표7의 점수는 각 피조사자마다 0점부터 3점까지 분포하는 원점수를 각 범주별로 평균한 것으로서, 점수가 클수록 더 탈현대적·진보적이라고 해석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인구통계학적 변인별로 크게 유의하지 않은 불확실성 회피 성향(표5)과 미래지향성(표6)의 요약 결과는 제외하고, 그 대신 탈물질주의 점수(6개의 탈물질주의 국가목표 중 몇 개를 택했는지)의 결과를 표7에 함께 제시하였다(탈물질주의의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 절 참조).

표9에서 눈에 띄는 점은 연령의 효과와 교육수준의 효과가 모든 차원에서 아주 일관성있는 결과를 보였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연령이 젊을수

표 9. 1998년 가치관의 차원별 합산점수 요약표

	개인주의 (표2)	탈권위주의 (표3)	자기주장성 (표4)	남녀평등 의식 (표7)	풍요로운 생활 (표8)	탈물질주의 ^a
성 별						
남자	1.34	1.91	1.25	1.51	1.56	2.29
여자	1.47	1.83	1.24	1.73	1.61	2.21
<i>t</i>	2.10*	n.s.	n.s.	3.40**	n.s.	n.s.
연령별						
20 - 29세	1.78	2.03	1.47	1.94	1.70	2.65
30 - 39세	1.32	2.03	1.32	1.73	1.65	2.30
40 - 49세	1.37	1.79	1.10	1.48	1.58	2.14
50 - 59세	1.09	1.60	1.07	1.29	1.46	1.96
60세이상	1.28	1.59	0.89	1.28	1.16	1.61
<i>t</i>	-4.15***	-5.13***	-4.86***	-5.90***	-4.46***	-6.39***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12	1.70	1.04	1.29	1.30	1.88
고졸	1.38	1.82	1.19	1.59	1.62	2.22
대재 이상	1.56	1.99	1.40	1.81	1.69	2.47
<i>t</i>	5.15***	3.96***	4.28***	5.95***	4.70***	5.36***
지역규모별						
대도시	1.50	1.89	1.28	1.69	1.68	2.34
중소도시	1.36	1.87	1.27	1.56	1.52	2.26
읍면이하	1.21	1.80	1.07	1.54	1.40	1.96
<i>t</i>	-3.07**	n.s.	-2.34*	n.s.	-3.27**	-3.24**

주. 부록 A의 문1의 각 문항마다 보수적 선택은 0점, 진보적 선택은 1점으로 코딩하여 3문항씩 합산했으므로, 합산된 원 점수는 각 피조사자마다 0점에서 3점까지 분포. ^a탈물질주의 점수는 장기적인 국가목표 12가지 중 중요하게 꼽은 6 가지 안에 탈물질주의 항목(부록 A의 문2 참조: 직장과 사회에서 발언권 증대, 환경 개선, 언론자유 보장, 정부 정책 결정에 발언권 증대, 좀 더 인간적인 사회로의 발전, 그리고 돈보다 아이디어가 중요시되는 사회) 중 몇 개를 포함시켰는지를 점수화하였으므로 0점에서 6점까지 분포. *t*값들의 의미는 각 변인 내에서의 단순증가(linear contrast)가 유의한지의 여부.

* $p < .05$. ** $p < .01$. *** $p < .001$.

록,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일관성있게 더 개인주의적, 탈권위주의적, 자기주장적이며 개방적인 여성관을 지니고 있었고, 풍요로운 생활을 중요시하면서도 탈물질주의적인 성향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1990년대 말의 한국 사회는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는 가치와 자기주장적·탈현대적인 가치가 공존하는 시기인 것으로 해석된다. 즉, 물질주의에서 탈물질주의로 나아가는 경계선(cutting edge)상에 있다고 여겨진다(Inglehart, 1997, p.17 참조). 지역규모별로는 큰 지역에 사는 사람일수록 유의하게 더 개인주의적, 자기주장적, 탈물질주의적이며 풍요로운 생활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나머지 두 차원에서도 (비록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지역규모가 클수록 조금 더 탈권위주의적

이며 남녀평등 의식 쪽으로 치우치는 결과를 보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개인주의와 남녀평등 의식 차원에서만 유의하여, 남자보다 여자가 더 개인주의적이며 개방적인 남녀평등 의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9의 가장 오른쪽 열에 있는 탈물질주의 점수는 장기적인 국가목표 12가지 중 중요하게 꼽은 6가지 안에 탈물질주의 항목(부록 A의 문2 참조: 직장과 사회에서 발언권 증대, 환경 개선, 언론자유 보장, 정부 정책결정에 발언권 증대, 좀 더 인간적인 사회로의 발전, 그리고 돈보다 아이디어가 중요시되는 사회) 중 몇 개를 포함시켰는지를 점수화한 것으로, 0점에서 6점까지 분포한다. 젊은 층이 보다 탈물질주의 쪽에

가깝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평균치가 3점을 밑돌아 1998년 현재 한국은 아직 물질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단계가 아닌가 여겨진다.

합산된 차원점수들끼리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면, 자신과 가족 중심 개인주의는 자기주장성($r=.135, p<.001$), 남녀평등 의식($r=.153, p<.001$), 풍요로운 생활($r=.194, p<.001$), 및 탈물질주의($r=.118, p<.01$)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대체로 변화의 방향이 일치하는 차원들임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모두 탈현대적인 변화 방향을 의미한다. 탈권위주의는 자기주장성($r=.126, p<.001$) 및 남녀평등 의식($r=.217, p<.001$)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특히 권위주의를 벗어나려는 것이 남녀평등 의식과 깊은 관계를 가진다는 점이 주목된다. 탈현대적 변화 방향은 대체로 현재 선진국들의 문화유형과 일치하는 것이다(차재호·나은영 역, 1995; Hofstede, 1980, 1991; Inglehart, 1997; Na, in press 참조).

3. IMF 전후 세대별 탈물질주의 가치의 변화

표10은 한국의 탈물질주의 (또는 물질주의) 경향이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게 된 1997년 12월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기 위해 1998년의 본 조사 결과를 1995년의 조사(정철희, 1997)와 비교한 것이다. 국가의 장기목표 여섯 개를 고를 때 다섯 개 이상을 물질주의에서 택한 사람을 물질주의자로 분류하였으며, 다섯 개 이상을 탈물질주의에서 택한 사람을 탈물질주의자로 분류하였다.

나머지는 혼합형에 속한다.

결과를 살펴 보면, IMF 이전에 탈물질주의로 치닫던 경향이 대체로 주춤해지면서 물질주의 쪽으로 잠시 후퇴한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역방향의 변화 속도도 젊은 층이 더 빨랐다. 구체적으로, 1995년에 비해 1998년에는 물질주의자의 비율이 높아지고(40.4%), 혼합형은 감소했으며(-39.4%), 탈물질주의자도 약간 감소했다(-1.1%). 이런 결과는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된 1997년 12월 이후의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노소 모두 혼합형이 줄어들고 물질주의자가 많아지면서, 세대차는 1995년에 비해 줄어들었다. 1995년에는 세대차가 컸으나, 일단 지금은 노소 모두 경제 성장이나 풍요로운 생활을 중요시하는 듯하다. 그래도 여전히 세대차는 같은 방향으로 존재한다. 젊은 층이 급격한 변화에 더 빨리 적응하며, 젊은 층의 변화 폭이 더 커서 세대차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치관의 변화가 탈물질주의 쪽으로 진행되던 속도도 젊은 층이 빨랐으나, IMF 이후 물질주의 쪽으로 잠시 역행하는 속도도 젊은 층이 빠르다는 사실은 특기할 만하다. 전자는 세대차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했으나, 후자는 세대차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한 셈이다.

앞서 논의한 가치관 21문항(표2부터 표8까지) 중에서 탈물질주의 점수(탈물질주의 항목 여섯 개 중 몇 개를 택했는지를 연속점수화 한 것: 표9의 우측 열 참조)와 상관관계가 유의한 문항들은 다음과 같이 모두 7문항이었다:

표 10. 1995년과 1998년 조사에서 물질주의자, 혼합형, 및 탈물질주의자의 연령별 비율(%)

연령	물질주의자			혼합형			탈물질주의자		
	1995	1998	증가분	1995	1998	증가분	1995	1998	증가분
20 - 29세	7.3	51.0	+43.7	83.0	39.7	-43.3	9.6	9.1	-0.5
30 - 39세	15.7	60.5	+44.8	77.4	36.8	-40.6	6.9	2.7	-4.2
40 - 49세	23.0	64.8	+41.8	72.8	32.4	-40.4	4.2	2.8	-1.4
50 - 59세	32.6	71.9	+39.3	65.2	25.1	-40.1	2.2	3.0	+0.8
60세이상	54.4	87.0	+32.6	45.6	13.0	-32.6	0.0	0.0	0.0
증가분 평균			+40.4			-39.4			-1.1
20대 - 50대 세대차	-25.3	-20.9	-4.4	17.8	14.6	-3.2	7.4	6.1	-1.3

주. 1995년의 조사 결과는 정철희(1997)의 표6에서 12항목 척도의 결과를 옮기고(p.78), 1998년의 조사 결과를 추가한 다음, 각 유형 비율의 연령대별 증가분 및 20대와 50대 간 세대차를 계산함.

- 문항1(충효사상은 중요치 않음)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 $r=.072, p<.05$.
- 문항3(출세가 효도)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 $r=.090, p<.05$.
- 문항7(시정을 요구해야)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 $r=.121, p<.01$.
- 문항13(미래보다 과거 버림)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 $r=-.123, p<.01$.
- 문항16(혼전 순결 꼭 지키지 않아도 됨)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 $r=.164, p<.001$.
- 문항19(돈은 꼭 있어야)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 $r=-.138, p<.001$.
- 문항20(인생은 풍부하게)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 $r=.143, p<.001$.

4. 가치관의 변화와 세대차 증감 요약

본 논문의 두 가지 목적은 1970년대와 1990년대의 가치관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그리고 20년 간의 가치관 변화로 인한 세대차의 증감은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이었다. 전체적인 논의를 위해, 지금까지 자세히 보고한 가치관의 변화와 세대차의 증감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요약해 놓은 것이 표11이다. 이 표에서 가치관의 변화량을 계산한 방법은 각 문항마다 두 개의 선택지 가운데 두 번째의 선택지를 택한 사람들의 1970년대 비율과 1990년대 비율 간 차이를 구했다. 앞의 표2부터 표8까지에서는 시대변화의 폭을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각 층별로(예컨대, 남녀별, 연령대별, 및 학력별로) 계산한 z 값을 제시했으나, 표11에서는 시대변화의 전체평균 비율을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1970년대와 1990년대 각각의 세대차는 각 연도에서 20대의 응답과 50대의 응답 간 차이를 구함으로써 계산하였고, 세대차의 증감 정도는 두 연도의 세대차 간의 차이를 다시 계산함으로써 구했다. 여기서는 먼저 가치관의 변화와 세대차의 증감 정도를 항목별로 살펴 본 다음(표11), 시대효과와 연령효과를 나누어 분석한 결과(표12)를 제시하고자 한다.

표11의 왼쪽 세 열을 보면, 1970년대와 10% 이상

큰 차이를 보이며 증가한 가치관은 자신과 가족 떠받들기, 윗사람 틀린 점 지적하기, 실력과시보다 겸손을 중요시하는 점, 낙오자 도태는 자연적 귀결이라고 생각하는 점, 정조를 지키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점, 결혼한 여자도 활동해야 한다고 믿고 시집과 친정을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고 보는 점, 인생은 풍부하고 여유있게 보내야 한다고 보는 점 등이다. 반면에 1970년대에 비해 큰 변화가 없는 가치관, 즉 3% 미만의 차이를 보이는 가치관은 인내보다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미래보다는 과거를 버리겠다는 생각, 그리고 전통풍습이 도움이 된다고 보는 점 등이다.

표11의 오른쪽 네 열을 보면, 1970년대에 비해 10% 이상 세대차가 커진 젊은 층 쪽의 가치관은 충효사상을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며 출세가 효도라고 보는 점, 상하구별보다 적능구분을 더 중요시하는 점, 정조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점, 인생은 풍부하게 살아야 한다고 보는 점 등이며, 대체로 모든 문항에서 세대차가 커졌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1970년대에 비해 세대차가 줄어든 가치관은 외국인에게 더 친절해야 한다는 한 문항 뿐이다. 특히 충효사상은 덜 중요하고 정조를 지키지 않아도 무방하며 풍부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20대 젊은 층의 생각은 1970년대부터 계속 50대의 고연령층과 10% 이상의 차이를 보여 큰 세대차가 있었지만, 1990년대에 세대차가 증가한 폭도 10%가 넘어 현재에는 더욱 큰 세대차를 보이는 항목들이다. 한편, 변화의 폭은 그리 인상적이지 않지만 1970년대부터 세대차가 10% 이상으로 계속 큰 젊은 층 쪽의 가치관은 자신과 가족 떠받들기, 대인관계에서 불만을 참기보다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시집과 친정을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생각 등이다.

5. 시대효과와 연령효과 구분

그렇다면, 1970년대에서 1990년대로 넘어오는 동안 우리가 겪어 온 변화들 가운데 과연 어떤 것들이 순수한 시대의 흐름에 따른 효과라고 해석될 수 있을까? 어떤 항목들은 시대변화보다는 단순한 연령의 증

표 11. 1970년대와 1990년대의 가치관 변화와 세대차 증감 요약표

문항 내용	가치관의 변화 ^a			세대차 증감 ^b			
	1970년대	1990년대	차이	1970년대	1990년대	차이	
개인주의 (표2)							
1. 충효사상 중요치 않음	19.65	25.35	+ 5.70	11.3	29.0	+17.7	# ^c
2. 자신과 가족 떠맡들기	41.30	58.70	+17.40	15.3	19.1	+ 3.8	#
3. 출세가 효도	47.00	43.30	- 3.70	4.0	19.2	+15.2	#
탈권위주의 (표3)							
4. 순종보다 책임감 중요시	66.80	69.70	+ 2.90	9.0	12.6	+ 3.6	#
5. 상하구별보다 직능구분 중요시	27.15	30.40	+ 3.25	-1.7 ^d	18.5	+16.8	#
6. 윗사람 틀린 점 지적	74.00	86.95	+12.95	5.0	11.7	+ 6.7	#
자기주장성 (표4)							
7. 인내보다 시정요구	64.50	66.10	+ 1.60	24.0	28.1	+4.1	#
8. 겸손보다 실력과시	34.50	20.70	-13.80	-1.0	7.1	+6.1	#
9. 낙오자 구제해야(-) ^e	76.20	62.30	-13.90	-3.7	-4.0	+0.3	
불확실성 회피 (표5)							
10. 인생 서둘러야	42.35	31.35	-11.00	-2.0	5.3	+3.3	#
11. 외국인에 덜 친절	18.00	14.05	-3.95	6.0	2.6	-3.4	#
12. 처음 보는 사람 경계	.	12.90	.	.	-7.8	.	
미래지향성 (표6)							
13. 미래보다 과거 버림	89.85	92.35	+2.50	0.4	-5.2	+4.8	
14. 미래 대비함	.	82.90	.	.	-9.9	.	
15. 전통풍습 도움 안됨	21.00	22.40	+1.40	0.0	7.1	+7.1	#
남녀평등 의식 (표7)							
16. 정조 지키지 않아도 됨	12.00	28.85	+16.85	14.6	32.6	+18.0	#
17. 결혼한 여자는 가정 안(-)	60.50	34.35	-26.15	1.7	-10.3	+8.6	
18. 시집과 친정 동등하게	36.65	66.85	+30.20	16.7	21.6	+4.9	#
풍요로운 생활 (표8)							
19. 돈은 꼭 있어야	68.35	76.50	+ 8.15	-9.9	-13.8	+ 3.9	
20. 인생은 풍부하게	35.85	50.05	+14.20	14.3	37.1	+22.8	#
21. 직업귀천 없다(-)	58.85	68.20	+ 9.35	-0.4	-1.0	+ 0.6	

주. 10%가 넘는 차이는 이탤릭체로 표시함. ^a각 문항의 두 선택지 중 두 번째 항목(표의 좌측에 쓰여 있는 내용)을 선택한 사람들의 비율(%) [문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A 참조]. ^b20대의 선택 비율에서 50대의 선택 비율을 뺀 값(각 문항마다 두 번째 항목의 선택 비율을 기준으로). ^c1998년 조사 자료에서 20대가 50대보다 두 번째 항목을 택한 비율이 더 높은 경우 #표시. 이 표시가 없는 경우는 각 문항의 두 선택지 중 첫 번째 항목이 더 젊은 층의 가치관임을 의미함. ^d50대의 선택 비율이 20대보다 높은 경우 음의 수를 갖게 됨. 그러나 세대차의 증감을 계산할 때에는 단순한 세대간 격차의 증감을 의미하므로 여기서 계산된 부호를 무시하고 1990년대의 세대차 절대치에서 1970년대의 세대차 절대치를 뺀 값을 구함. 이렇게 구해진 값(즉, 오른쪽에서 두 번째 열)이 음수인 경우는 세대차가 줄어들었다는 의미임. ^e해당 가치치원 내에서 합산할 때 역으로 코딩한 문항.

가에 의한 변화(또는 고연령층 인구 비율의 증가에 의한 변화)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물음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위해 가치관 문항별로 시대효과와 연령효과를 분석하여 표12에 제시하였다. 먼저, (1)1990년대의 40대가 각 문항의 두 선택지 중 두 번째 항목을 택한 비율에서 1970년대의 20대가 택한 비

율을 뺀 값을 구했다. 1970년대의 20대가 나이를 먹으면서 시대변화를 겪어 1990년대의 40대가 되었을 것이므로, 이 값에는 시대효과와 연령 효과가 모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시대+연령 효과). 그리고 (2) 1990년대의 20대가 각 문항의 두 선택지 중 두 번째 항목을 택한 비율에서 1970년대의 20대가 택한 비

표 12. 각 문항별 시대효과와 연령효과 분석

문 항 내 용	시대+연령 효과 ^a	시대 효과 ^b	연령 효과 ^c
개인주의 (표2)			
1. 충효사상 중요치 않음	-2.5	16.3	-18.8
2. 자신과 가족 떠받들기	23.4	33.0	-9.6
3. 출세가 효도	-6.9	4.9	-11.8
탈권위주의 (표3)			
4. 책임감 > 순종	-5.2	3.5	-8.7
5. 직능구분 > 상하구별	0.6	10.2	-9.6
6. 윗사람 틀린 점 지적	-2.2	3.6	-5.8
자기주장성 (표4)			
7. 인내보다 시정요구	-7.4	14.8	-22.2
8. 겸손보다 실력파시	-20.9	-7.1	-13.8
9. 낙오자 구제해야(-) ^d	-12.2	-13.6	1.4
불확실성 회피 (표5)			
10. 인생 서둘러야	-15.1	-4.3	-10.8
11. 외국인에 덜 친절	-14.8	-4.6	-10.2
미래지향성 (표6)			
13. 미래보다 과거 버림	1.0	0.0	1.0
15. 전통풍습 도움 안됨	-0.3	4.1	-4.4
남녀평등 의식 (표7)			
16. 정조 지키지 않아도 됨	-0.7	25.9	-26.6
17. 결혼한 여자는 가정 안(-)	-22.7	-33.9	11.2
18. 시집 = 친절	22.6	29.9	-7.3
풍요로운 생활 (표8)			
19. 돈은 꼭 있어야	21.4	2.4	19.0
20. 인생은 풍부하게	-4.4	28.2	-32.6
21. 직업귀천 없다(-)	6.2	8.1	-1.9

주. 시대효과와 연령효과 중에서 10%가 넘는 경우는 이별릭체로 표시함. ^a1998년의 40대가 각 문항의 두 번째 시점 중 두 번째 항목을 택한 비율에서 1979년의 20대가 택한 비율을 뺀 값. ^b1998년의 20대가 각 문항의 두 번째 항목을 택한 비율에서 1979년의 20대가 택한 비율을 뺀 값. “시대+연령” 효과에서 “순수 시대효과”를 뺀 값. 연령효과가 -인 경우는 20대가 50대보다 각 문항의 두 번째 항목을 택한 비율이 더 높은 경우이고, 연령효과가 +인 경우는 두 번째 항목의 선택 비율이 50대가 더 높은 경우임. ^d해당 가치차원 내에서 합산할 때 역으로 코딩한 문항. 문항12와 문항14는 1970년대의 자료가 없어서 시대 및 연령효과를 구할 수 없었음.

을 뺀 값을 구했는데, 이것은 두 시대의 같은 연령대 사람들의 응답 차이이므로 순수한 시대효과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1)에서 (2)를 뺀 값은 바로 순수한 연령효과를 의미한다.

표12에서 시대효과와 연령효과가 모두 9% 이상으

로 크면서 반대방향인 항목들을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시대가 지날수록 충효사상을 덜 중요시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충효사상을 중요시한다. (2)시대가 지날수록 나라보다 자신과 가족을 더 떠받드는 경향이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경향이 줄어든다(연령효과를 극복할 정도로 시대효과가 큰 항목). (3)시대가 지날수록 상하구별보다 직능구분을 더 중요시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직능구분보다 상하구별을 더 중요시한다(연령효과는 10%에 조금 못미치는 -9.6%). (4)시대가 지날수록 인내보다 시정 요구를 선호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시정 요구보다 인내를 선호한다. (5)시대가 지날수록 정조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점차 늘어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정조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6)시대가 지날수록 결혼한 여자도 활동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결혼한 여자는 집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이 항목도 연령효과를 극복할 정도로 시대효과가 큰 항목). (7)시대가 지날수록 인생은 풍부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인생은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항목들에서는 시대효과와 연령효과가 반대방향이므로, 대체로 이 부분에서 세대차의 증가폭이 크다(표11 참조).

시대효과가 연령효과보다 5% 이상 더 큰 탈현대 방향의 가치관을 살펴 보면, 자신과 가족 떠받들기, 낙오자 도태는 자연적 귀결이라고 보는 관점, 그리고 결혼한 여자도 활동해야 하며 시집과 친절은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생각 등이다. 반면, 연령효과가 시대효과보다 5% 이상 더 큰 젊은 층 쪽의 가치관은 출세가 효도라고 생각하는 것, 인내보다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보는 것, 겸손보다 실력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 인생은 서둘러야 한다는 생각, 외국인에게 특별히 더 친절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 그리고 돈은 없어도 그만이라는 생각 등이다.

시대효과와 연령효과가 모두 10% 미만으로 작으면서, 예나 지금이나 노소 모두 50% 이상 찬성하는 쪽의 가치관은 책임감 있는 사람을 고분고분한 사람보다 더 선호하는 점, 윗사람이라도 틀린 점은 지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점, 그리고 직업에는 귀천

이 없다고 생각하는 점, 미래보다는 과거를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 그리고 전통풍습이 도움이 된다고 보는 점 등이다.

요약 및 결론

본 조사의 결과, 1990년대 말에 가장 눈에 띄는 한국인의 가치관 특성은 (1)자신과 가족 중심의 개인주의 증가(특히 젊은 층과 고학력 및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2)여성에 대한 인식 변화(사회활동, 정조관념 등), (3)탈물질주의 가치 증가 경향 추춤(IMF 이후 물질주의 쪽으로 약간 되돌아감), 그리고 (4)자기주장성 및 불확실성 수용경향 증가 등으로 드러났다.

1970년대에 비해 뚜렷한 시대변화를 보인 가치관들은 주로 남녀평등 인식, 자신과 가족 중심의 개인주의, 자기주장성, 및 풍요로운 생활의 추구 차원에서 관찰되며, 뚜렷한 세대차 증가를 보인 항목들은 주로 풍부한 인생 중요시, 정조관념 및 상하구별 경시, 그리고 개인주의의 증가와 관련되는 가치들이었다. 대체로 급격히 변화하는 가치관일수록 세대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예컨대, 자기주장성, 남녀평등 인식, 및 풍요로운 생활 등을 향한 변화를 젊은 층은 비교적 빨리 받아들이고 고연령층은 뒤늦게 수용하기 때문에 세대차도 그만큼 더 커지게 된다. 간혹 도덕적인 정답(예를 들면, 실력을 과시하는 것보다 겸손을 중요시함) 쪽으로 응답이 치우친 항목도 있으나, 대체로 개인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탈현대 방향으로의 변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IMF 이전에 탈물질주의로 치달던 경향이 잠시 주춤해지면서 물질주의 쪽으로 후퇴한 경향도 보였다. 탈물질주의 쪽으로의 변화 속도도 젊은 층이 더 빨라 세대차를 급격히 증가시켜 왔으나, 물질주의 쪽으로 잠시 역행하는 속도도 젊은 층이 더 빨라 이 경우는 세대차를 일시적으로나마 줄이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가치관의 변화에 적응하는 문제는 세대간의 가치 차이 및 갈등을 해결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급변하는 시대변화의 흐름을 잘 따라잡아야만 21세기에 적응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젊은 층의 가치관

에 미래의 가치관의 변화 방향이 엿보이고, 젊은 층의 변화 속도가 가치관의 변화 속도를 반영하므로, 이전의 가치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고집하기보다 앞으로의 변화 방향과 속도를 예측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합류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달리는 기차에 충격 없이 몸을 신기 위해서는 기차와 같은 방향으로(즉, 변화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달리면서 기차에 올라타는 것이 가장 충격을 적게 받는 방법이다.

이전의 가치 가운데 어떤 것들을 계속 보존해야 할지 선별하여, 다가오는 가치관들과 충돌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배양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현재 큰 세대차를 보이고 있는 가치에서의 갈등을 줄이고 세대간 이해를 넓히는 데 주력하는 것이 좋겠다. 가치관이 달라도 의사소통의 단절은 막아야만 더욱 큰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세대간, 지역간, 및 집단간 등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집단들 간의 의사소통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다(나은영·민경환, 1998 참조). 변화의 흐름에 역행하기보다 흐름에 부드럽게 적응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21세기를 눈앞에 둔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나은영(1997). 법전문가와 비전문가의 법의식에 관한 심리학적 분석. 법과 사회, 14, 176-204.
- 나은영·민경환(1998). 한국문화의 이중성과 세대차의 근원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기존 조사자료 재해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4(1), 75-93.
- 임희섭(1994). 한국의 사회변동과 가치관. 서울: 나남출판.
- 정철희(1997). 문화변동과 사회민주화: 탈물질주의 가치와 공중-주도 정치. 한국사회학, 31, 61-83.
- 차재호(1985). 70년대말에서의 가치, 태도 및 신념으로 본 한국인의 세대차. 사회심리학연구, 2(2), 129-168.
- 차재호·나은영 역(1995). 세계의 문화와 조직: 문화간

협력과 세계 속에서의 생존. 서울: 학지사.

Hofstede, G.(1980).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Beverly Hills, CA: Sage.

Hofstede, G.(1991).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London: McGraw Hills.

Inglehart, R.(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

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Na, E. -Y.(in press). National transparency, interpersonal trust, and dimensions of culture: A secondary analysis of 61 countries' common data.

부록 A: 분석에 이용된 설문지의 문항들

(주. 각 문항 옆에 적혀 있는 가치차원의 명칭과 코딩 부호는 실제 설문지에는 제시하지 않았음.
인구통계학적 질문은 생략함.)

문1. 다음 각 문항에서 두 개의 보기 가운데 귀하의 생각에 조금이라도 더 가깝다고 생각되는 것을 하나만 골라 주십시오.

[개인주의]

1. 요즘같은 세상에는
 - 1) 충효사상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 2) 충효사상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2. 사람이 가장 떠받들어야 할 것은
 - 1) 자기의 나라이다.
 - 2)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다.
3. 효도라는 것은
 - 1) 자기 출세를 포기해서라도 부모를 경제적으로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봉양하는 것이다.
 - 2) 부모의 봉양이 소홀하더라도 자기의 소질을 충분히 발휘하여 출세하는 것이다.

[탈권위주의]

4. 내가 어느 직장의 장이나 고용주라면 새로 사람을 쓸 때
 - 1) 일의 책임감은 좀 떨어져도 상사에게 고분고분한 사람을 쓰겠다.
 - 2) 상사에게 좀 건방지게 굴어도 자기 할 일을 잘 해 내는 사람을 쓰겠다.
5. 사회가 질서를 유지하려면
 - 1) 상하의 구별이 분명하여야 한다.
 - 2) 모든 사람이 높고 낮음이 없고 오로지 하는 일만 나누어 가지고 있어야 한다.
6. 내가 존경하는 어떤 사람의 생각이 내가 보기에 분명히 틀렸을 때
 - 1) 그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든가 모른 척하는 것이 옳다.
 - 2) 정중히 그의 생각이 틀린 점을 지적하는 것이 옳다.

[자기주장성]

7. 사람들이 함께 행복하게 오래 사이좋게 지내려면
 - 1) 자기의 불만을 나타내지 않고 참아야 한다.
 - 2) 자기의 불만을 털어놓고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8. 개인적인 실력이 월등해도 너무 드러나면 남에게 건방지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렇다고 드러내지 않으면 실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1) 겸손하게 실력을 갖춘다.
 - 2) 실력을 드러낸다.
9. 생존경쟁은 낙오자를 도태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 1) 이것은 자연적인 귀결이고 사회를 위해 좋은 일이다.
 - 2) 이것은 슬픈 일이며 낙오자를 구제해야 한다.

(-)

[불확실성 회피]

10. 오늘 인생을 사는 지혜는
 - 1) 오늘 못하면 내일이라도 할 수 있다고 여유있게 마음을 갖는 것이다.
 - 2) 오늘 못하면 다시는 못한다고 서둘러 일을 끝내는 것이다.

11. 우리는 외국사람을 대할 때
 1) 손님이나 우리가 다른 우리나라 사람에게 하는 것보다 더 친절히 대해야 한다.
 2) 우리나라 사람에 하듯 하거나 우리나라 사람에 대해서보다 덜 친절해야 한다.
12.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는 (새로 첨가한 문항)
 1) 대체로 친절히 대하는 것이 좋다. 2) 대체로 경계하는 것이 좋다.
 [미래지향성]
13.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셋 중 어느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어느 편을 버리겠습니까?
 1) 미래를 버리고 과거와 현재만 둔다. 2) 과거를 버리고 현재와 미래만 둔다.
14. 다음 둘 중 하나만 택한다면 (새로 첨가한 문항)
 1) 현재를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2)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15. 전통적인 풍습은
 1) 오늘날 문명의 위기를 극복하는 열쇠이다.
 2) 어디까지나 과거의 세계에 속하고 오늘의 문명을 구하는 데 별로 도움이 안된다.
 [남녀평등 의식]
16. 처녀는 결혼할 때까지
 1) 정조를 지켜야 한다. 2) 꼭 정조를 지킬 필요는 없다.
17. 요새 세상에는 (-)
 1) 결혼한 여자도 남자처럼 밖에 나가 활동을 해야 한다.
 2) 생활이 많이 바빠졌지만 여자의 자리는 역시 가정 안이라고 생각한다.
18. 여자가 결혼한 후에는
 1) 시집에 충성을 다하고 친정과는 가능한 접촉을 끊어야 한다.
 2) 시집식구를 섬기지만 자기 친정 식구보다 더 섬길 필요는 없다.
 [풍요로운 생활]
19. 돈이란 것은
 1)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다. 2) 꼭 있어야 하고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20.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은
 1) 인생을 실수없이 깨끗이 옮겨 사는 것이다.
 2) 인생을 실수 좀 하더라도 풍부하게 사는 것이다.
21. 직업에는 수입은 어떻든 간에 (-)
 1) 귀하고 천한 직업이 있다. 2) 귀하고 천한 직업이 따로 없다.

문2. 다음 국가 목표 중 장기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탈물질주의]

		1순위	2순위
3-1	① 높은 경제성장 유지 ③ 방위력 증강	② 직장과 사회에서 발언권 증대 ④ 환경 개선	
3-2	① 언론자유 보장 ③ 정부 정책결정에 발언권 증대	② 물가, 인플레이 억제 ④ 사회의 질서 유지	
3-3	① 경제 안정 ③ 각종 범죄 소탕	② 좀 더 인간적인 사회로의 발전 ④ 돈보다 아이디어가 중요시되는 사회	

부록 B: 1998년 조사시의 조사 지점

지 역	조 사 지 점
서 울	가회동/신정동/노고산동/합정동/마장동/성수동/행당동/신길동/도봉동/방화동/화곡동/노유동/ 미아동/신사동/둔촌동/노량진동/흑석동/방배동/문정동/잠실동/하계동/상계동/신도림동/장위동/ 북가좌동
부 산	연산동/보수동/북례동/남행동/율하동/구서동/대현동/우암동/범일동/온천동/전포동/구포동/ 감천동/일락동/반동/좌동
대 구	중리동/비산동/신암동/대명동/이천동/황금동/만촌동/산격동/상인동/봉리동/북현동/대신동
인 천	부평동/학익동/가좌동/구월동
광 주	계림동/월곡동/치평동
대 전	월래동/오정동/산성동
울 산	무거1동/남외동
경기-시부	수원시(정자동)/군포시(산본동)/안양시(안양동)/고양시(주엽동)/의왕시(오전동)/ 남양주시(이패동)/안산시(본오동)/시흥시(정왕동)/성남시(분당동)/광명시(하안동)/ 의정부시(의정부동)/파주시(파주읍)
경기-군부	광주군(옥포면)/화성군(매송면)
강원-시부	춘천시(약사동/후평동)
강원-군부	홍천군(홍천읍)
충북-시부	청주시(운천동/율량동)
충북-군부	청원군(옥산면)
충남-시부	천안시(두정동)
충남-군부	예산군(대울면)
전북-시부	익산시(모현동)/전주시(삼천동/금암동)
전북-군부	완주군(삼례읍)
전남-시부	목포시(산정동)
전남-군부	무안군(운남면)
경북-시부	영천시(청동면)/경산시(중방동)
경북-군부	칠곡군(왜관읍)
경남-시부	양산시(양산동)/밀양시(내일동)/김해시(외동)/창원시(신월동)
경남-시부	의령군(의령읍)

Changes of Values and Generational Gaps Between 1970's and 1990's in Korea

Eun-Yeong Na and Jae-Ho Cha

Chonbuk National University · Seoul National University

Changes of values and generational gaps between 1970's and 1990's in Korea were analyzed based on the two periods' survey data. Direct comparisons were possible by including the same items in 1998 survey as in 1979. Remarkable characteristics of the values of Koreans at the end of 1990's were (1)the increase of individualism emphasizing self and close family (more prominent in younger, highly educated, and higher income groups), (2)the increase of egalitarian perspective toward women (permission of social activity, decrease of stick to chastity), (3)temporal retreat of postmaterialism toward materialism after the beginning of IMF, and (4)the increase of assertiveness and a slight decrease of uncertainty avoidance. Younger generation's values where noticeable increase of generational gaps were observed were the emphasis of rich life, the negligence of chastity and of upper-lower status distinction, and the increase of individualism and of assertiveness. Greater increases of generational gaps were found in rapidly changed values, which could be attributed to a more rapid and greater change in younger than older generation. Temporal retreat toward materialism from postmaterialism after the beginning of IMF was also more rapid in younger than older generation. The degrees of increase and decrease in various dimensions of values and generational gaps were discussed in terms of the distinction between cohort effect and simple aging.